

캐나다 호텔 절반이 폐업으로 내몰린다

COVID-19로 인해 8천여 개 캐나다 호텔의 절반이 곧 폐업할 수 있으며, 관련 업종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할 것이라고 업계 리더가 경고하고 있다.

캐나다 호텔협회 회장 겸 CEO인 수지 그리놀은 토론토 스타의 후원으로 열린 캐나다 관광산업협회 가상정상회담에서 "연방 프로그램이 호텔리어들이 COVID-19에 대처하는 데 도움을 줬지만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놀의 설명에 따르면 캐나다 호텔들이 국제적인 호텔 체인의 이름을 걸고 있지만 대부분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과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고용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호텔에 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로 여성, 밀레니엄 세대, 이민자, 눈에 보이는 소수민족으로 가장 취약한 캐나다인들이다."라고 덧붙였다.

호텔협회는 캐나다에 약 8,300개의 호텔이 있고 30만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호텔이 국내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산업 중 하나이다.

70~100%의 매출 손실을 안고 영업을 하고 있을 때, 벌어지고 있는 일은 바로 이 영세 자영업자들이 지난 몇 달 동안 저축한 생활비를 다 써버렸다는 것이다. 계속 날아오는 각종 청구서를 처리할 돈도 없고 고정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지에 대한 대책도 막막한 상황



이다. 오타와는 모기지 및 기타 비용을 도왔지만, 호텔이 여전히 공공요금과 필수 수리비를 지불해야 한다. 시계가 파산이나 폐업을 향해 똑딱거리며 가고 있지만 해결책은 도무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조사에 응한 캐나다 호텔 소유주의 32%가 11월 이후로는 버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놀은 호텔업자들이 만약 의미 있는 지원을 바로 받지 못한다면 호텔업의 절반이 잠재적으로 무너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여행을 하지 않아 객실 점유율이 기록적으로 낮은 것이 근본 문제이지만 요금 인하로 인해 객실당 수입이 급감한 것도 문제라는 것이다.

오타와는 그동안 폭넓은 프로그램으로 빠르게 지원해 주어 업계가 고마워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런 경우가 별로 많지 않다.

그리놀은 "또 다른 문제점은 호텔업계가 다른 산업과 달리 회복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호텔업이 이렇게 큰 충격을 받은 이

유는 집단모임과 여행금지 제한 때문이다. 이러한 제한은 3월 중순부터 계속되고 있다. 축제, 행사, 회의, 결혼식을 할 수 없다는 뜻인데, 그게 호텔 사업의 핵심이다.

그리놀은 연방정부가 지금 일부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 시기가 본질이라고 말했다.

협회의 핵심 분야는 임금보조금 추가, 고정비 완화, 유동성 확보이다. 정부의 대출 프로그램은 은행들이 개개 호텔들에게 돈을 빌려주도록 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몇몇 호텔리어들은 은행에서 빚을 얻을 수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앞으로 6개월을 더 내다보고 수입과 지출을 생각한다. 그런데 6개월후에 문을 계속 열 수있을 지도 모르는데 은행인들이 어떻게 돈을 빌려줄 수가 없는 노릇이다.

코로나로 희한한 일이 생긴 셈인데 정부도 많은 취약계층 사람들을 고용하는 호텔산업을 적극 보호하던지 아니면 그냥 절반이 문을 닫도록 방치하던지 2개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

2020 서부 캐나다 차세대 네트워킹의 밤

2020 Next Generation Networking Night in Western Canada
Hosted by Korean Consulate in Vancouver

Dec 12th, 2020
7PM (Vancouver Time)

Online Zoom Meeting

RSVP now to attend!

SPEAKER
Jae Park, CEO of innofoods

"Get the most of today for better tomorrows"
How a university dropout became the CEO of the largest organic snack company in North America.

RSVP @ next-generation.ca

제빵사에서 글로벌 오가닉 스낵 기업 Innofoods를 창업해 성공하기까지 많은 위기와 좌절을 기회로 만든 박혁재 CEO의 여정을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www.next-generation.ca 로 신청하세요~

온라인 무료 행사로 모든 바운더리도 없었습니다. 주위 친구분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행사는 영어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경품 대잔치!

참여하시는 분들께 빵빵한 온라인 경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 행사 일시 : 2020년 12월 12일 (토) 오후 7시 (밴쿠버 시간)

○ 등록 웹사이트 : www.next-generation.ca

○ 등록 마감일 : 2020년 12월 6일 (일)

2020 서부 캐나다 차세대 네트워킹의 밤

전세계적 코로나 19위기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로감이 쌓여가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고 싶은 분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반복적인 일상에 도전을 받고 또 새로운 일들에 도전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주어진 오늘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모든 분들을 서부 캐나다 차세대 네트워킹 온라인 행사에 초대드립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빵집

한국, 연구원 작가 대기업이사 등 해외인재 복수국적 인정



-교수·연구원 등 학술분야 연구실적 우수자

-작가·화가·영화감독 등 문화·예술 분야 우수능력자

-올림픽대회 출전 선수·지도자·심사위원 등 스포츠분야 우수능력자

-국내·외 기업 또는 외부 기업에서 사내이사 등으로 근무자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신산업분야 및 첨단기술분야 근무자 등이 할 수 있다.

과학기술, 경제,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등 특정 능력을 보유한 외국국적 동포들은 한국서 복수국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복수국적을 신청 대상자:

-전직 국가원수·정부 수반·노벨상 수상자 등 저명인사

한국 법무부는 지난 6월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범

Express Entry 역대 최대 규모 5,000 초청장 발급

캐나다는 2020년 11월 18일에 사상 최대 규모의 익스프레스 엔트리 초청을 개최했다. 캐나다는 올해 9만2350건의 ITA를 발행해 목표치를 넘어섰다.

이번 초청에서 총 5,000장의 초청장이 발급되어 이민 후보자들은 캐나다 영주권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 후보자들은 이번 라운드에서 초청장을 받기 위해 최소 472점의 종합순위제(CRS) 점수가 필요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Express Entry)는 연방 숙련 노동자 프로그램, 연방 숙련 무역 프로그램 및 캐나다 체험 클래스 연방 경제 등급 프로그램을 위한 3가지 캐나다의 이민 신청 관리 시

스템이다. 이들 프로그램의 후보자와 일부 주 후보 프로그램(PNP)은 CRS를 기준으로 점수를 받는다. 영어 또는 프랑스어 언어 능력과 나이, 교육, 업무 경험 같은 인적 자원 요인에 따라 점수가 매겨진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지원자는 익스프레스 엔트리 초대라운드에서 캐나다 영주권을 위한 초청장(ITA)을 받는다.

후보 간 동점일 경우 IRCC가 동점 규정을 적용한다. 따라서, 이번 초청을 위해, CRS 점수가 472점 이상인 지원자들은 초청장을 받기 위해 10월 27일 이전에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로

을 제출해야 했다.

올해 CRS 요건은 일반적으로 모든 프로그램 초청에서 470을 상회했다. 8월 6일 연방 숙련 무역 프로그램 전용 초청은 CRS가 415명인 초청 무역 노동자를 추천하고, 이전 캐나다 체험 클래스 전용 초청은 440대로 떨어졌다.

지역 후보 지명을 받은 익스프레스 엔트리 후보자에게는 자동으로 600 CRS 포인트가 추가되기 때문에 PNP 전용 초청은 더 높은 요건을 갖는다. PNP는 CRS 점수가 낮은 익스프레스 엔트리 후보자에게 영구 거주할 수 있는 대체 경로를 제공한다.

헨슨&컴퍼니 변호사 사무실

한국어 법률 상담 403-537-8861

“ 법률로 해결할 일이 있습니까?
서두르거나 쉽게 결정하지 마시고, 최상의 방안을 찾아 최고의 결과를 만드십시오! ”

변 호 사	법 무 사	
 Gary E Hansen 캐나다 최고의 이민변호사	 Ben Plumer 소송 / 개인상해 / 이혼 전문 변호사	 에릭 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 •여권 및 영주권사진 •개인상해 •공증 •위임장 •유언장 & 상속 •RCMP 범죄경력서를 위한 지문조회

미국이민 · 캐나다이민 · 회사법 · 공증 · 부동산 · 유언장 & 상속 · 이혼 · 위임장 · 개인상해 · 소송

HANSEN & COMPANY

558 - 9th Avenue S.E., Calgary, Alberta T2G 0S1 www.hansen-company.com / Tel. 403-261-6890 / Fax. 403-263-1632